

교회 의사 결정 기구에 세대별 대표자 참여 '필요하다' 84%!

오늘날 세대 갈등은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이다. 세대는 각자 유사성/동질성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나, 또 한편으로는 쉽게 편을 가르고, 서로를 협력적 관계로 인식하기보다는 이질적, 더 나아가서는 적대적 관계로 전락시켜 갈등을 조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 양상은 사회뿐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번에 한국교회지도자센터에서 의뢰하여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분석한 '세대 통합 목회를 위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회 내에서도 세대 갈등이 존재했다. 다만 실제 출석교회 내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5명 중 1명에 그치고, '우리 교회는 세대 간 협력적이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응답된 점은 희망적인 측면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교회 의사결정 기구에 세대별 대표자 참여가 필요하다'에 84%가 응답한 부분은 세대통합 필요성에 대한 성도들의 적극적 의지와 관심 표명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에 주목할 만하다.

이번 <넘버즈 213호>를 통해 교회 내의 세대 간 갈등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세대 통합을 위한 세대 간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교회 내 세대 통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과 방향성을 찾고, 세대 통합으로 교회 공동체가 더욱 견고해지길 기대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대 통합 목회를 위한 설문 조사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개신교 교회 출석자 19~69세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표본 규모	600명(유효표본)
표본 추출 방법	연령별 유의할당 추출 - 19~29세 : 120명 - 30~39세 : 120명 - 40~49세 : 120명 - 50~59세 : 120명 - 60~69세 : 120명
조사 기간	2023년 7월 17일 ~ 7월 20일(4일간)
조사 의뢰 기관	한국교회지도자센터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연구/분석	목회데이터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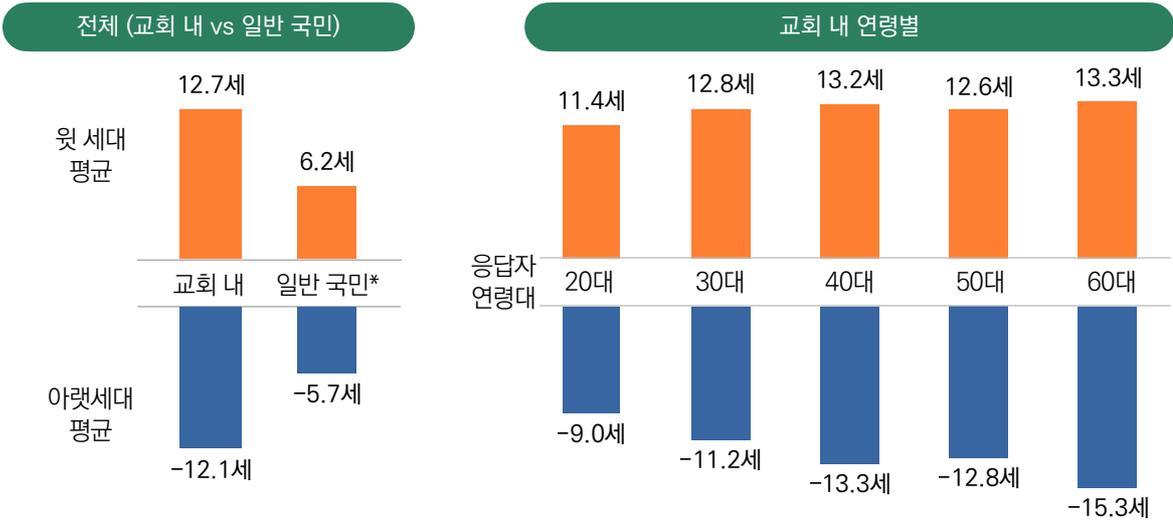
01

[세대 차이/갈등 인식]

세대 간격 인식, 교회 내 ±12세 vs 일반 국민 ±6세!

- ▶ 나와 같은 세대의 나이 범위 인식에 대해 '교회 내'와 '일반 국민'을 비교해봤다. 일반 국민이 느끼는 같은 세대 나이 범위는 ±6세로 조사됐는데, 교회 내 개신교인이 느끼는 범위는 ±12세로 2배 정도 높았다. 이는 교회 내에서 일반 국민 대비 상대적으로 세대 차이를 덜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 ▶ 연령별로 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같은 세대로 인식하는 나이 범위가 줄어들었다.

[그림] 나와 같은 세대의 나이 범위 (교회 출석 개신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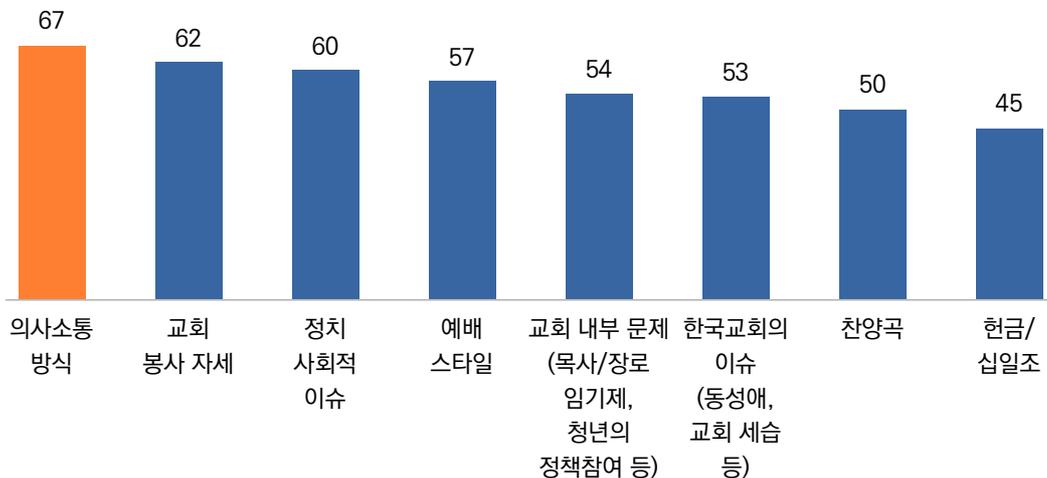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다른 세대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 2021.05.06.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0.02.19~22)

◎ 한국교회, 사역 전반적으로 세대 갈등 존재!

- ▶ 교회에서 세대 차이를 느낄 수 있는 항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각각의 경험 빈도를 물었다. 세대 차이를 가장 크게 느낀 항목은 '의사소통 방식'으로 3명 중 2명(67%)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교회 봉사 자세', '정치 사회적 이슈', '예배 스타일' 등의 순이었다. 그 외에 '교회 내부 문제', '찬양곡', '헌금/십일조'도 50% 안팎의 응답률을 보여 교회의 예배/설교, 봉사, 나눔/소통, 정책 등 전반적 영역에서 세대 차이/갈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출석교회 세대 갈등 빈도 (교회 출석 개신교인, '가끔+자주' 있었음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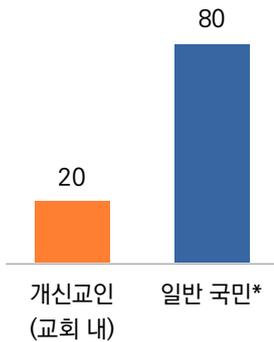


*4점 척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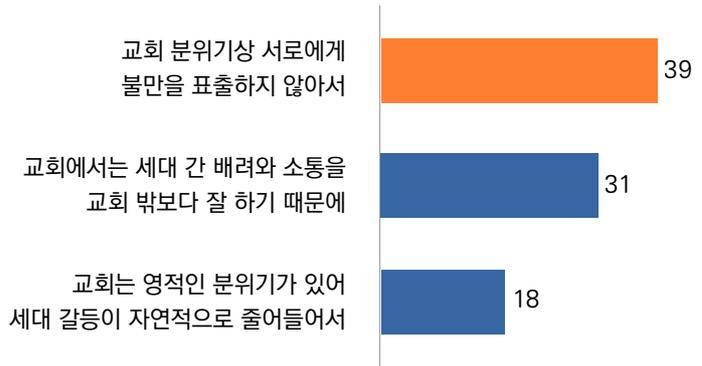
◎ 교회 안이 교회 밖보다 세대 갈등 적은 이유? 서로 불만을 표출 안 해서!

- ▶ 세대 갈등의 심각성 여부에 대해 개신교인(교회 내)과 일반 국민에게 각각 물은 결과, '개신교인'은 교회 내에서 20%가 심각하다고 응답해, '일반 국민'의 세대갈등 심각성 인식(80%)보다 크게 낮았다. 우리 사회와는 달리 교회 내에서는 세대 갈등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 교회 밖보다 교회 내부에서 세대 갈등이 적은 이유로는 '교회 분위기가 서로에게 불만을 표출하지 않아서'가 39%로 가장 높았다. 영적 공동체라는 특수성, 교회에서는 수용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갈등이 내재되어 있으나 표출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세대 갈등 심각성 인식
: 교회출석 개신교인 vs 일반 국민
(‘매우+약간’ 심각하다 비율**, %)



[그림] 교회 밖보다 내부에서 세대 갈등이 적은 이유
(교회 출석 개신교인, 상위 3위, %)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2023 세대인식조사] 세대갈등 및 다른 세대에 대한 인식, 2023.03.14.(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3.02.10.~0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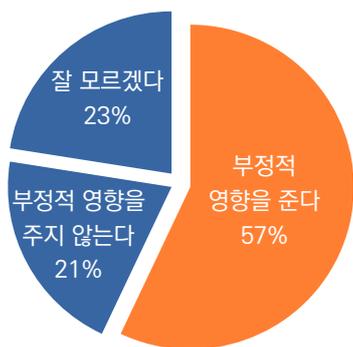
**4점 척도임

◎ 세대 갈등, 교회 이탈·신앙 회의로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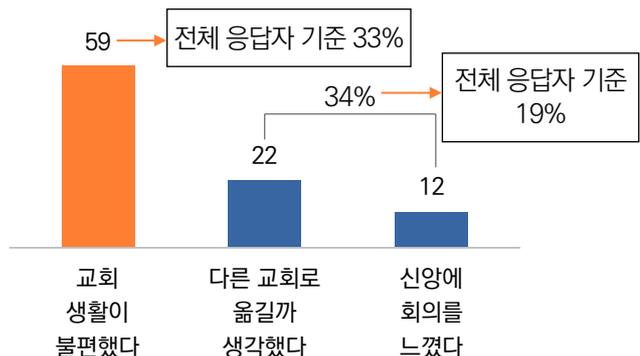
- ▶ 성도들에게 세대 차이와 갈등이 교회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다. 그 결과, 10명 중 6명 가까이가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응답해 교회 내 세대 차이/갈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 ▶ 세대 차이/갈등이 교회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교회 내 세대 차이/갈등이 초래한 가장 부정적 영향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교회 생활이 불편했다'를 1위로 꼽았고, 이어 '다른 교회로 옮길까 생각했다'가 22%로 2위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 출석 교인 기준으로 보면 3명 중 1명(33%)은 세대 갈등으로 교회 생활에 불편함을 느꼈고, '교회 이탈을 생각하거나 신앙에 회의를 느낀' 비율은 5명 중 1명(19%)에 달했다. 이처럼 세대 차이/갈등이 주는 파급효과가 교회 생활의 불편함뿐 아니라 교회 이탈, 신앙에 대한 회의에까지 미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세대 차이/갈등이 교회 생활에 미치는 영향
(교회 출석 개신교인)



[그림] 세대 차이/갈등으로 인한 교회 생활의 부정적 영향
(세대 차이가 교회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응답자, 상위 3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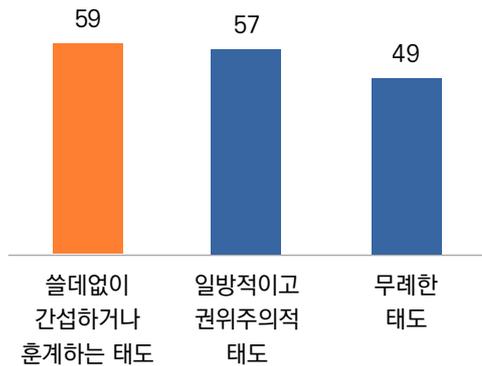
02

[교회 내 세대 갈등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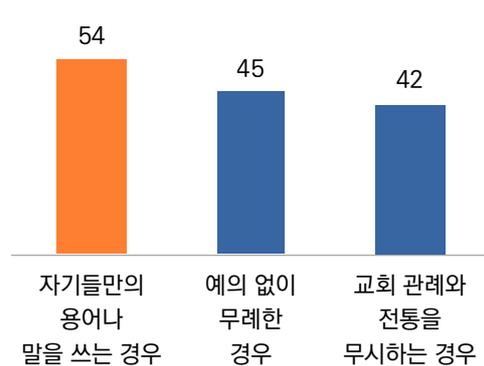
'쓸데없는 간섭' vs '자기들만의 용어 사용', 가장 큰 갈등 원인!

- ▶ 교회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윗세대/아랫세대의 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윗세대'로부터 마음이 힘들거나 갈등이 느낀 것으로는 '쓸데없이 간섭하거나 훈계하는 태도'(59%)와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 태도'(57%)가 가장 많았다.
- ▶ 반대로 '아랫세대'로 인해 갈등을 느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자기들만의 용어나 말을 쓰는 경우'가 54%로 가장 높게 응답됐다.

[그림] 갈등을 일으키는 윗세대의 태도
(교회 출석 개신교인, '자주+가끔' 있었다 비율*, %)



[그림] 갈등을 일으키는 아랫세대의 태도
(교회 출석 개신교인, '자주+가끔' 있었다 비율*, %)



*4점 척도임

◎ 윗세대에 대한 불만, 30·40세대가 가장 높아!

- ▶ 그렇다면 교회의 윗세대에 대한 아랫세대의 생각은 어떠할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와 '자신의 경험만으로 우리 세대를 판단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가 각각 74%, 72%로 가장 높았고, '신앙을 강요'하거나 '무례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 또한 5명 중 3명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다.
- ▶ 윗세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30·40세대에서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 30·40세대와 윗세대 간 소통을 통한 불만 해소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표] 윗세대에 대한 생각 (교회 출석 개신교인, '가끔+자주' 있었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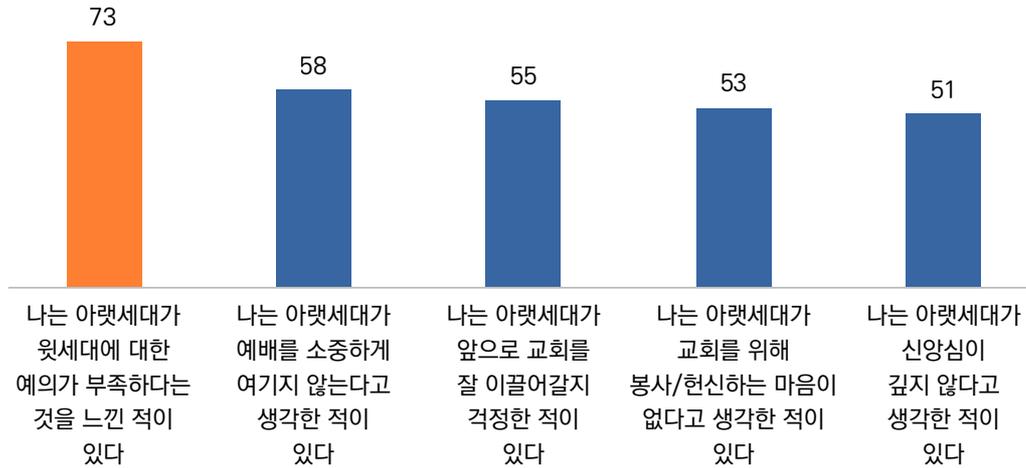
구분	나는 윗세대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나는 윗세대가 자신의 경험만으로 우리 세대를 판단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나는 윗세대가 신앙을 강요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나는 윗세대가 무례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나는 윗세대가 형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전체	74	72	63	63	60
19~29세	69	68	62	68	62
30~39세	77	77	68	76	63
40~49세	82	81	74	70	67
50~59세	74	71	65	58	58
60~69세	70	64	47	43	53

*4점 척도임

◎ 아랫세대에 대한 불만, '예의 부족'!

- ▶ 교회의 아랫세대를 평가한 몇 가지 진술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윗세대들의 생각을 물었다. 그 결과, 10명 중 7명 이상(73%)이 '아랫세대가 윗세대에 대한 예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다'에 응답해 '예의 문제'를 가장 높게 꼽았다.
- ▶ 또, 절반 남짓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이 있고'(58%), '아랫세대가 앞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갈지 걱정된 적이 있다'(55%)고 응답해 아랫세대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내비쳤다.

[그림] 아랫세대에 대한 생각 (교회 출석 개신교인, '가끔+자주' 있었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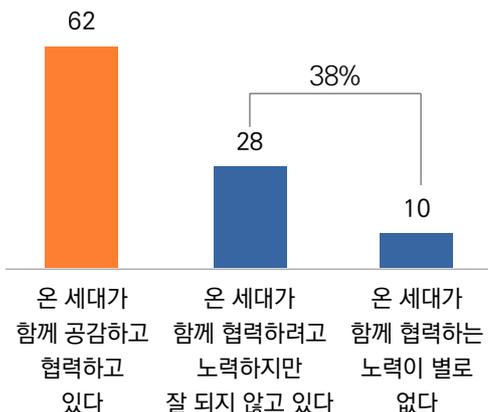
*4점 척도임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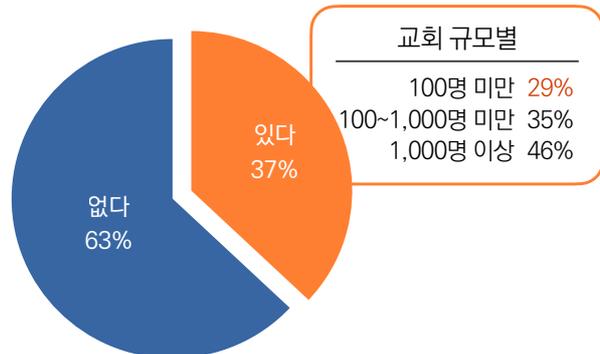
[세대 통합] 우리 교회, '세대 통합 프로그램 없다' 63%!

- ▶ 성도들을 대상으로 '출석교회의 세대 통합 의지 정도'를 물었을 때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협력하고 있다'는 응답이 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온 세대가 함께 협력하려고 노력하지만 잘되지 않고 있다' 28%, '온 세대가 함께 협력하는 노력이 별로 없다' 10% 순이었다. 전체 교회의 38%는 온 세대가 공감하고 협력하는 문화가 미흡하거나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 ▶ 한편 교회에 세대 통합 프로그램이 있다는 응답은 37%로 나머지 10개 교회 중 6개 이상은 '세대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통합 프로그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회 규모와 비례했는데 100명 미만 교회의 경우 29%에 불과했다.

[그림] 출석교회의 세대 통합 의지 정도 (교회 출석 개신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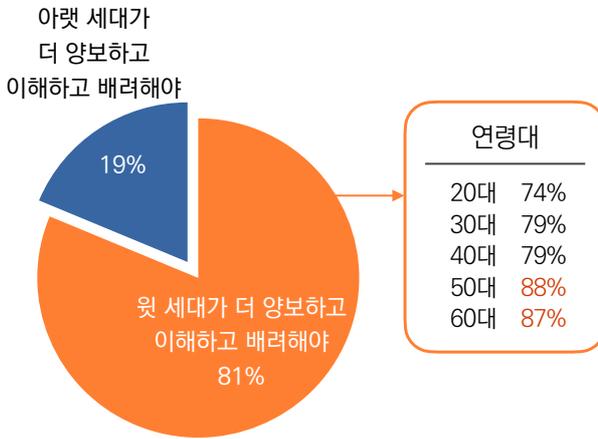
[그림] 출석교회의 세대 통합 프로그램 유무 (교회 출석 개신교인)



◎ 세대 갈등 해소 주체, 아랫세대보다 윗세대!

- ▶ 교회 내 세대 차이와 갈등을 해소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윗세대가 아랫세대에 대해 더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가 81%로 압도적이었고, 이를(윗세대가 더 양보해야 함) 세대별로 살펴보면 특히 50대, 60대가 각각 88%, 87%로 아랫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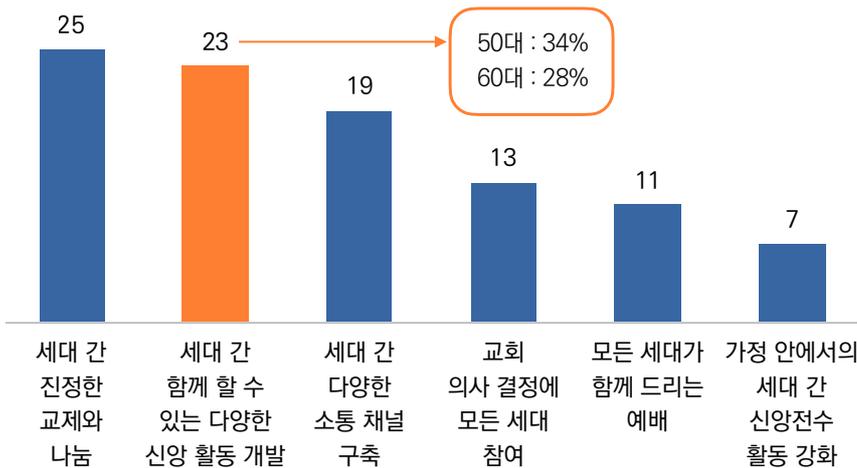
[그림] 교회 내 세대 차이/갈등 해소 주체 인식 (교회 출석 개신교인, %)



◎ 세대 차이 해소 방법,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신앙 활동' 필요!

- ▶ 교회 내 세대 차이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세대 간 진정한 교제와 나눔'(25%)과 '세대 간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신앙 활동 개발'(23%)을 가장 많이 응답했고, 다음으로 '세대 간 다양한 소통 채널 구축' 19%, '교회 의사 결정에 모든 세대 참여' 13% 등의 순이었다.
- ▶ 50·60세대의 경우 '세대 간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신앙 활동 개발'을 다른 세대 대비 더 많이 꼽은 점이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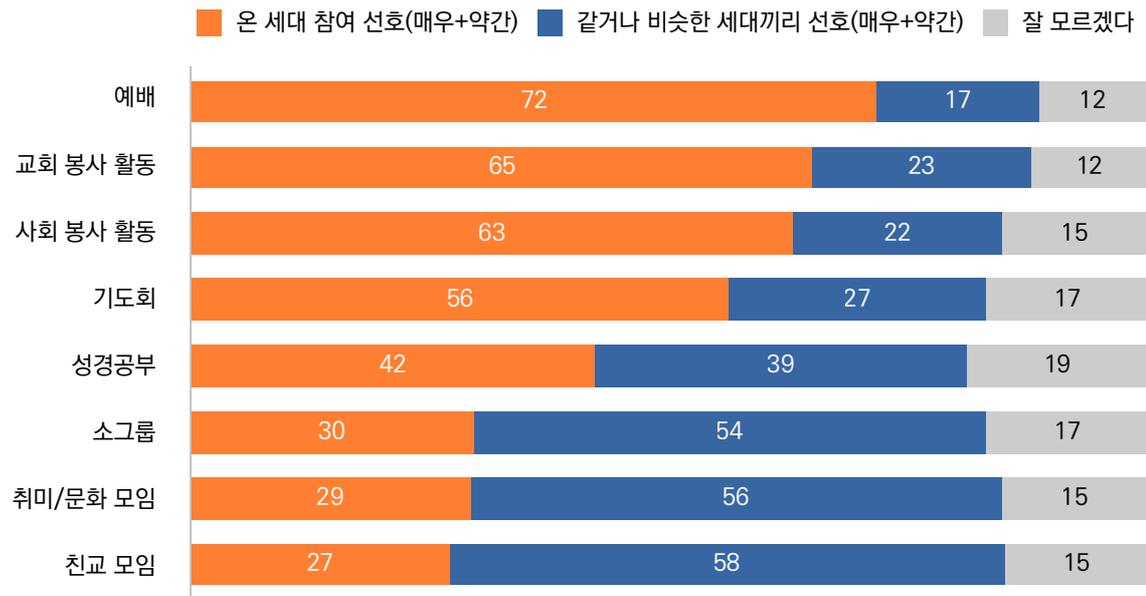
[그림] 교회 내 세대 차이/갈등 해소의 효과적 방법 (교회 출석 개신교인, 상위 6위, %)



◎ 봉사활동은 ‘온 세대 참여’, 소그룹은 ‘비슷한 세대끼리’가 적절!

- ▶ 교회 활동별로 온 세대 참여가 좋은지, 같거나 비슷한 세대끼리가 좋은지 각각 물어 보았다. 그 결과 ‘온 세대 참여 선호 모임’으로는 ‘예배’가 72%로 가장 높고, 이어 ‘교회 봉사 활동’ 65%, ‘사회 봉사 활동’ 63% 등의 순이었다. 반면 ‘비슷한 세대를 선호하는 모임’은 ‘친교 모임’ 58%, ‘취미/문화 모임’ 56%, ‘소그룹’ 54% 등의 순이었다.
- ▶ 교회 공동체의 화합과 세대 통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세대가 함께 봉사활동, 사역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획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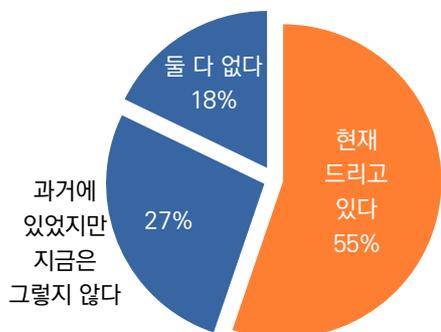
[그림] 교회 활동/모임 중 선호 유형 (교회 출석 개신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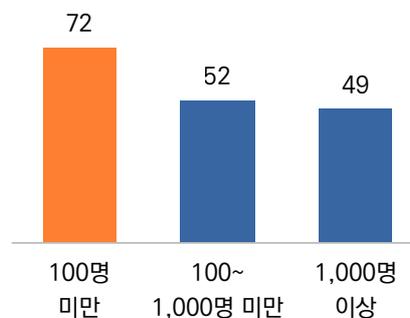
◎ 우리교회, ‘온 세대 예배 드린다’ 55%!

- ▶ 앞서 성도들은 온 세대가 참여하는 교회 활동으로 ‘예배’를 가장 선호했는데, 온 세대 예배는 교회에서 얼마나 이뤄지고 있을까? 현재 온 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비율은 55%로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 ▶ 교회 규모별로 보면 출석 교인이 적은 교회일수록 온 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비율이 높았는데 100명 미만 교회의 경우 72%가 온 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림] 온 세대 예배 유무 (교회 출석 개신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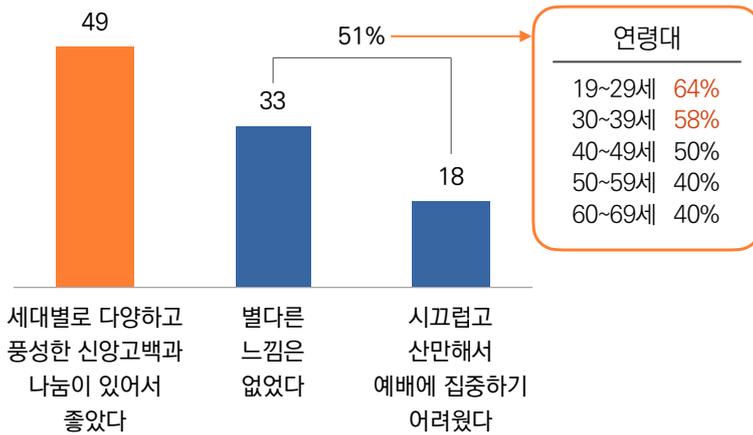
[그림] 교회 규모별 온 세대 예배 드리는 비율 (교회 출석 개신교인, %)



◎ MZ세대, 온 세대 예배에 대해 부정적 의견 높아!

- 온 세대 예배 경험자에게 해당 예배 시 느낌을 묻은 결과, '세대별로 다양하고 풍성한 신앙고백과 나눔이 있어서 좋았다' 49%, '시끄럽고 산만해서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웠다'와 '별다른 느낌이 없었다'는 51%로 긍정과 부정인식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부정적 의견이 더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는데, 20·30 MZ세대의 경우 보통 또는 부정적 의견이 60% 내외로 긍정적 의견보다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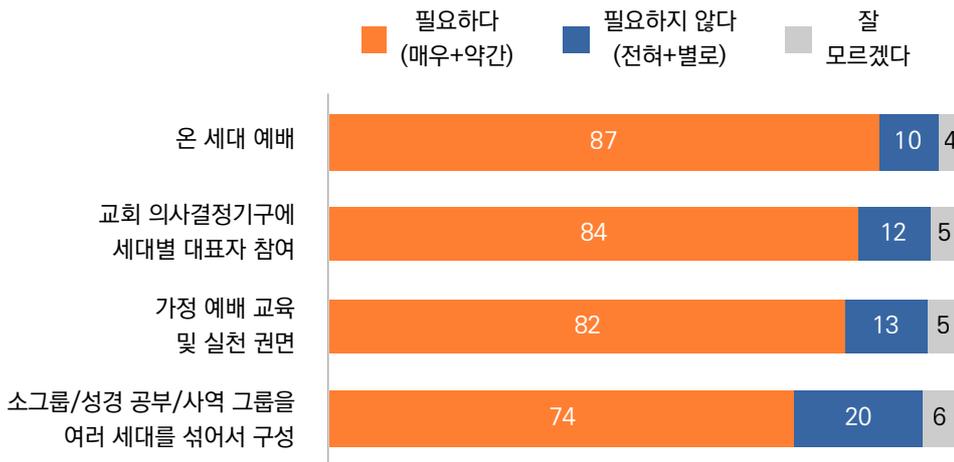
[그림] 온 세대 예배 시 느낌 (온 세대 예배 경험자, %)



◎ 교회 의사결정기구에 세대별 대표자 참여 필요하다, 84%!

- 교회 세대 통합을 위한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 각각의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온 세대 예배'가 8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회 의사결정기구에 세대별 대표자 참여' 84%, '가정예배 교육 및 실천 권면' 82% 등의 순이었다.
- 예배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정책 결정 등 세대 간 소통 채널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교회 세대 통합 대안별 필요성 (교회 출석 개신교인, %)



*4점 척도임

시사점

정치, 이념, 노사, 남녀, 지역, 세대 등 우리나라는 여러 집단 갈등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 '세대 갈등'은 어느 정도일까? 올해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집단 갈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기성세대와 젊은세대의 '갈등이 크다'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84%로 나타났고, 이는 최근 4년 사이 14%p가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에 대해 80%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90%가 향후 세대 갈등이 '지금보다 비슷하거나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세대 갈등은 이전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앞으로도 쉽게 풀리지 않을 매듭과도 같은 숙제이다.

그 어느 사회적 집단보다 다양한 세대가 모여 있는 교회 내 세대 갈등 인식은 어떠할까?

개신교인은 출석교회의 세대 갈등 심각성에 대해 20%만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일반 국민의 세대 갈등 심각성 인식률 80%보다 크게 낮은 수치이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사회와는 다른 교회의 특성이 드러난다. '교회 밖보다 교회 내부에서 세대 갈등이 적은 이유'로 '교회 분위기가 서로에게 불만을 표출하지 않아서'(39%)를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이다. 굳이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감추어 두거나 무관심한 것이다.

실제 교회 내 세대 간 갈등 빈도는 낮지 않았다. 가장 빈번한 갈등은 '의사소통 방식'이었고 그다음으로 '교회 봉사 자세', '정치 사회적 이슈', '예배 스타일' 순이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갈등의 이유가 주로 '방식', '자세', '스타일' 등 '태도'에 관련됐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세대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윗세대는 아랫 세대가 '자기들만의 용어 사용'을, 아랫 세대는 윗세대의 '쓸데없는 간섭과 훈계'를 지적한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세대 차이와 갈등이 삶의 방식, 즉 '문화'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세대 간의 경험과 문화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다.

공동체인 교회가 세대 간의 차이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다른 세대의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인간의 생각과 생활 양식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농업시대 청년과 산업시대의 중년, 그리고 후기산업시대 장년이 같을 수 없다. 그러므로 동시대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청년과 미국 청년이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세대 간에는 '서로 다름'에 대한 인정이 우선 필요하다. 이러한 상호 인정이 있어야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고 진정한 교류가 가능해진다. 그 바탕 위에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다른 세대들이 왜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는지를 이해한다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둘째는 '다른 세대와의 경험 공유'를 많이 해야 한다. 상호 이해는 서로 간의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이번 조사에서 세대 통합 활동으로 적절한 것으로 '교회 봉사', '사회 봉사'가 많이 응답된 것도 경험의 공유라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세대 통합을 위해서는 '교회 봉사', '사회 봉사' 같은 활동을 적극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세대 갈등을 위해서는 윗세대가 먼저 양보와 포용'을 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세대 간 유의미한 인식 차이를 보인 것이 있는데, 3040세대에서 윗세대에 대한 불만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60세대에서는 교회 내 세대 갈등의 해소 주체를 '윗세대의 몫'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현재 교회 내 주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세대가 담임목사를 비롯한 중직자 등 5060세대임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교회를 이끌 주체인 청장년층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윗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양보와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회는 공동체이다. 하나님은 지체들을 한 몸으로 부르시고 서로 하나가 되면 사랑하라고 기도하셨다. 그러므로 각 세대가 서로의 부족함 혹은 다름을 받아들이고, 교회 내 존재하는 갈등/단절을 통합으로 이끄는 노력을 그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집단별 갈등인식', 2023.05.23.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2023 세대인식조사', 2023.03.14.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